

전주 미래 비전 담은 종합홍보책자 발간

‘전주, 천년의 전라를 잇다’ 민선 8기 전주시 철학·비전 담아

전주시가 민선 8기의 시정과 강한 경제로 가기 위한 미래 비전, 전주의 천년 역사와 문화,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집 형태인 전주시 종합홍보책자 ‘전주, 천년의 전라를 잇다’를 발간했다.



전주시 종합홍보책자 ‘전주, 천년의 전라를 잇다’

지난달 발간된 전주시 종합홍보책자는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에 맞춰 3대 주력산업 등 경제·산업 부문과 함께, 후백제의 역사를 품은 동고산성과 조선을 연 태조 이성계의 대종가가 울려 퍼진 오목대 등 역사·문화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정체성과 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진 100여 점을 실어냈다.

구체적으로 ‘전주, 천년의 전라를 잇다’는 △미래지향: ‘내일로 나아가는 오늘의 전주’ △천년역사: ‘모로 가도 왕도가 있는 전주’ △문화유산: ‘당신의 유산이 우리의 축제로’ △푸드리뷰: ‘전주의 손맛, 세계적인 맛’의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첫 번째 장 ‘내일로 나아가는 오늘의 전주’에서는 탄소, 수소, 드론 산업과 미스 산업, 전주역 개선사업 등 강한 경제 도시로 나아가는 전주의 미래 비전을 담았고, 두 번째 장 ‘모로 가도 왕도가 있는 전주’에서는 완산

백제(후백제)와 조선왕조의 유산, 동학농민혁명, 한옥마을 등 천년전주의 역사와 위상을 담았다.

또한 세 번째 장 ‘당신의 유산이 우리의 축제로’에서는 전주의 독보적인 무형문화재와 문화의 힘으로 피어난 전주대사습놀이, 조선팔페스티벌, 전주문화재야행 등을 소개했고, 네 번째 장 ‘전주의 손맛, 세계적인 맛’에서는 세계적인 여행잡지 ‘토리플래닛’에서도 극찬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식문화를 전주 한정식, 전주비빔밥, 전주풍나물국밥 등 전주 대표 음식과 더불어 맛깔스럽게 담아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발행된 이번 종합

홍보책자는 지면을 가득 채우는 사진 이미지와 간결하고 압축적인 원고로 구성돼 이전 원고 중심의 종합홍보책자와 차별성을 뒀다.

특히 달변가의 언어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진인 만큼, 시각적으로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낸 각 사진을 통해 충분히 서사가 읽힐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는 이로 하여금 사진 속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한편 이번 종합홍보책자 제작에 참여한 곽풍영 사진작가는 25년간 항공촬영을 연구하며 작품활동을 이어온 항공사진 전문작가로, 그동안 지역의 문화, 인물,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작업을 해왔다. 이번 종합홍보책자의 드론 사진은 고도에서 바라보는 전주 도심을 새로운 시각과 각도로 담아내 느낌을 더했다.

김형미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전주, 천년의 전라를 잇다’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과거의 전주와 새로운 천년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전주가 조우하는 책자’라며 “종합홍보책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전주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널리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종합홍보책자 ‘전주, 천년의 전라를 잇다’는 국·영문 혼용 책자로 전곡 공공기관, 문화기관, 대사관 등에 무료 배포되며, 전주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20세기 한국사 변곡점 만들어낸 순간

신간도서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40가지 사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은 시대의 한복판에서 군중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바꾸자고 한목소리로 외쳤던 경험의 일화이다. 일상이 특별한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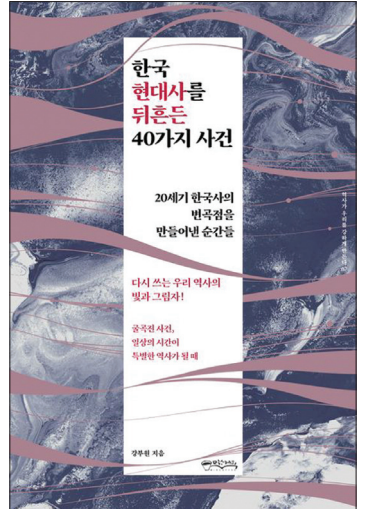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성장 사회의 부실한 민낯이자 끔찍한 자화상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무참하고 비정한 참사다.

책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40가지 사건’ (믹스커피)은 20세기 한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순간들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 담긴 40가지 사건 사고는 마냥 아름답고 평화롭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름과 갈등으로만 접철되지도 않았다.

성장 시대에서 자유와 평등을 외친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유기당한 빈민들의 광주대단지 사건, 노숙의 나체 시위를 사육이 똥물 세례로 되바라진 동일방직 여직공 박지 투쟁, 30년 만에 재회한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 등이 흥미롭다.

역사를 바꾼 물락의 얼굴들을 바라볼 기회도 제공한다. 사카린 밀수 사건부터 국회 오물 투척 사건까지 이어지는 1966년의 한 때, 성탄절에 일어난 세계 최대 호열 ‘대연극’ 화재 참사, ‘건국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 불린 장영자 어음 사기사건 등은 물락의 얼굴들이다. /뉴시스



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1개소당 2억원 지원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은 건축행위 등의 규제에 생활에 제약이 받아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문화재청이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

계를 구축하 위해 주민이 사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나후된 정주거민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자체 공도를 통해 국가유산 5개소를 선정한다”며 “개소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에 드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풍납동 토성, 흥도 천연보호구역 등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사는 곳과 수원화성처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올해 내로 5개소에 있는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 해당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주환경 개선이 진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 나서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익산시가 새해를 맞아 관광 해설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9일 미륵사지 박물관에서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라는 특별전시 관람객에게 눈높이에 맞는 해설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미륵사지 박물관 전문가인 학예

사가 직접 진행해 특별전시관 뿐 아니라 박물관 내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익산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300만 명으로 올해는 5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익산 관광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 28명은 지역 5개 관광 안내소에 배치돼 있으며,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를 위해 수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고군산군도’ 개최

군산시민의 활기찬 새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55회 정기연주회 ‘고군산군도’를 개최한다.

해마다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음악회를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꾸며 시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 집시남작 서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음악회를 선사한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2024년을 기대하며, 2024년 새해에도 군산시민들이 건강하고 한 해를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민들께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이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예매한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063-454-5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광준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